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

천년비원을 품은
강진청자 이야기

신라 말 탐진인 장보고는 중국 월주청자 기술을 강진에 들여온다.
이후 고려시대의 강진도공들은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의 비색으로
승화 발전시킨다. 마침내 강진은 세계적인 청자의 성지가 된다.



강진군
GANGJINCITY

마을 도공들의 텃새

도공들이 기다렸던 초가을은 제때에 어김없이 왔다. 낮에는 햇볕이 모당모당 쏟아지다가도 초저녁이 되면 선득한 하늬바람이 불어왔다. 천태산 산자락의 푸른 나무숲이 시나브로 붉고 노랗게 변해갔다. 도공들이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봄에 이어 또 다시 한 차례 그릇을 채운 가마에 불을 때기 때문이었다. 불별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나 삭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을 피해서 봄철과 초가을에만 한 차례씩 가마에 불을 때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녹천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여름 내내 마음 편한 날이 거의 없었다. 도공들이 일하는 동막에 갈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다. 정 족장 가마의 도공들이 최녹천을 은근히 따돌렸던 것이다.

소나기가 감푸게 내리는 날이었다. 최녹천은 비를 피해 동막 처마 밑으로 들어갔다가 동막 안에서 도공들끼리 하는 말을 엿듣고는 정 족장 집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다.

“굴러온 도박이 백힌 도박 빼불졌어.”

“누가 굴러온 도박인디?”

“참말로 몰라서 묻냐! 최녹천인가 뵈인가 허는 놈이제.”

밭물레를 차는 토기장 조씨와 새끼줄로 성형한 토기에 무늬를 만드는 거내꾼 김씨가 최녹천을 비웃는 말이었다. 두 사람은 돌맹이를 ‘도팍’이라고 했다. 지병으로 죽은 불대장 최씨의 후임자로 정 족장 토기가마에서 일한 지 5년밖에 안 된 안씨는 별로 말이 없었는데, 그는 불대장을 오랫동안 했던 최씨의 외사촌동생이었다. 조씨가 또 말했다.

“최가가 토기장이 되든 우리는 모다 여그서 찬밥 신세가 되부러.”

“성님, 찬밥만 돼야도 좋겄소. 족장님이 우리덜을 인자 집에서 쉬라고 해도 벨 수 읍겄지라.”

“족장님 집 가마에서 일헌 지 10년도 넘었는디 설마 우리덜 밥줄을 끊기사 헐라고. 근디 최가 놈이 월주에서 배운 기술이 우리덜보담 낫다고 허신께 앞일은 모르겄다야.”

도공들이 하는 말은 청자기술을 가지고 온 최녹천 때문에 자신들이 정 족장에게 받아온 대접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었다. 소나기를 흠뻑 맞고 정 족장 집 헛간 옆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최녹천은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 그때 땀나무하는 노비가 누더기지만 자신의 옷이 한 벌 있으니 갈아입으라고 했지만 최녹천은 마음이 심란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동막의 도공들이 자신을 슬슬 멀리했던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 번은 동막 토방에서 도공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최녹천이 오자 술잔을 놓은 뒤 일하는 척했던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식사시간에 돼지고기를 자기들끼리만 먹어치운 때도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었다. 산골짜기 개울에서 진흙을 찾아 파오는 질꾼은 최녹천이 정 족장에게 자신들의 연행을 일러바치는 세작(細作)일 것이라고 모함했던 적도 있었다.

그래도 최녹천은 스스로 분을 가라앉혔다. 정 족장 집을 나가는 쉬위도 돌아오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보자기가 되어 연명하던 자신의 가족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더구나 장보고의 은혜를 생각하면 함부로 정 족장 집을 떠날 수도 없었다.

최녹천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뿔나무꾼 노비였다. 하루는 노비가 최녹천의 방으로 들어왔다. 올가을 가마에 불을 때기 보름 전이었다. 노비가 말했다.

“월주도공님, 여그 도공덜 땀시 땀이 괴롭지라우?”

“자네가 내 땀을 아는구만.”

“지가 지켜봤지라우. 근디 여그 도공덜이 자떼바떼헌 것은 이유가 있지라우. 정 족장님께서 도공님을 가차이헐라고 헌께 부러와서 그렇만요.”

“내가 부러와서 그란다는 말이여?”

“그라믄요.”

“허허허.”

“지가 볼 때는 해결해주실 분은 족장님밖에 읍어라우. 족장님께서 말썽한 마디만 허시른 깨깃이 정리가 되겠지라우.”

“나보고 족장님께 말썽드리라는 말인가?”

“그라믄요. 지가 어처케 감히 말썽드리겠습니까요.”

“알겠네. 근디 자네는 나보고 월주도공이라고 부르는데 인자 그라지 말게. 나도 탐진도공이 아닌가.”

“아따, 지는 여그 도공덜허고 달리 부르고 쥘아서 그랬지라우.”

“나는 월주만 생각허든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단 말이여.”

“아이고메, 그란지 몰랐그만요.”

그날 밤. 검푸른 서쪽 하늘에 연화의 눈썹 같은 초승달이 떠 있을 무렵이었다. 연화는 마을 위쪽에 자리한 쌍계사의 처녀 공양주보살의 법명이었다. 최녹천은 쌍계사 가는 오솔길에서 연화를 몇 번 마주쳐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썹이 가끔 어른거렸던 것이다. 최녹천은 정 족장의 사랑방 앞에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를 반복했다. 이윽고 최녹천은 두 손을 앞으로 모은 뒤 정 족장을 불렀다.



“족장님!”

방 안은 컴컴했다. 그래서 최녹천은 다시 한 번 더 불렀다.

“족장님!”

“녹천이가 무슨 일인가?”

사랑방이 아니라 사립문 쪽에서 정 족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 족장은 미산포 토기창고를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다. 정 족장이 말했다.

“방으로 들어오게. 미산포 창고는 요번에 토기덜이 나오믄 포도시 채와지겠드그만.”

“장삿배가 또 올 모양이그만요.”

“우리 토기는 읍어서 못 폴아. 근디 자네 청자가 나오믄 살라고 허는 장사덜이 눈쟁이멩키로 몰려들 것잉마.”

탐진 사람들은 송사리를 ‘눈쟁이’라고 불렀다. 정 족장은 아직도 최녹천이 동막 도공들에게 따돌림을 받는지 모르고 있었다. 최녹천은 사랑방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족장님, 드릴 말썸이 있그만요.”

“뭇인가. 말해 보게.”

“시방 지가 이라지도 저라지도 못허고 있는디 어처케 했으믄 좋을지 모르겠그만요.”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가?”

“그라그만이라우. 요즘에는 동막에 가고 잤지 앓그만요.”

“으째서 그런 말을 허는가?”

“동막 사람덜이 지만 보면 자떼바떼허그만요.”

“불대장이나 거내꾼, 질꾼, 토기장 모다 그렇다는 말인가?”

“불대장만 빼고 다 그렇습니다요.”

“그라졌제. 불대장은 가마에 온 지 뗏 년 안된 초짚께. 무신 말인지 알졌네. 일단 땀 편히 묵고 가서 쉬게.”

“지가 못나서 생긴 일이지라우. 죄송허그만요.”

“내가 눈치를 몬자 채지 못헌 것이 미안허네. 가마 불 땔 때가 다가 오는디 말이네.”

정 족장은 최녹천을 돌려보낸 뒤 노비를 불렀다. 노비에게 동막에 있는 도공들을 모두 불러오도록 지시했다. 잠시 후, 일을 마친 뒤 쉬고 있던 토기장 조씨, 불대장 안씨, 거내꾼 김씨, 질꾼 하씨 등이 정 족장 사랑방으로 달려왔다. 모두들 무명 바지저고리가 하나 같이 흙투성이였다. 정 족장은 도공들을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다.

“녹천이는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어런디 느그덜이 작장작장 허고 있다는디 사실이냐!”

“....”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겨우 질꾼 하씨가 변명했다.

“지는 진흙덩이를 찾을라고 밖으로만 돌아댕겼그만요. 족장님께서 무신 말썽을 허시는지 잘 모르겠당께라우.”

“어차든지 니도 동막에서 묵고 자지 않았느냐?”

“잠이사 잤지라우.”

질꾼 하씨도 더 이상 변명을 못했다. 정 족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느그덜이 녹천이를 우습게 보는 모양인디 녹천이도 본래 탐진 사람이여. 글고 느그덜땡키로 양민이여. 에렸을 때 흑독헌 기근 땀시 보자기가 된 것뿐이란 말이여. 이름이 있는 것을 보든 양민이 틀림없어.”

최녹천이 탐진 사람이고 양민 출신이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러니까 보자기 출신이라고 하여 알아보았던 속내도 있었던 것이다. 토기장 조씨가 더듬거렸다.

“족장님, 지덜이 크게 잘못했어라우.”

“니덜이 우리 가마에서 10년 이상을 고상헌 거는 잘 안다. 공께 한 번은 봐주겠는디 여그가 싫으면 떠나도 좋다. 모다 제냥시렵기는.”

거내꾼 김씨가 말했다.

“이 마실에서 대대로 살아왔는디 어처케 족장님 가마를 떠난다요.”

“자발탱이 읊는 놈덜 같으니라고! 쫓쫓.”

정 족장이 혀를 차며 말하자 토기장이 또 고개를 주억거렸다.

“요번 가마는 청자만 넣는게라우?”

“니 생각은 으쩐디?”

“우리는 토기만 맹글어 봤는디 청자 유약을 어처케 맹글고 불은 으짤 방법으로 때는지 알 수 읊응께라우.”

“어처케 한 번에 확 바꾸겼느냐.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야.”

“족장님 말씀하시지라우.”

좀체 나서지 않는 불대장 안씨가 말했다.

“요번 내 가마에 느그덜이 맹근 토기를 반 넣고, 녹천이가 맹근 청자를 반 넣으믄 으짜졌냐? 그라믄 공평헌 거 같다만.”

토기장이 말했다.

“족장님, 고로코름 해주시믄 지덜은 안심이지라우.”

“인자 알겠다. 니덜이 녹천이를 경계헌 것을. 앞으로 토기 반 청자 반씩 가마에 넣을 텐께 그리 알아라.”

“근디, 족장님. 토기와 청자를 으디에 넣을께라우?”

“고것은 한 번은 앞에, 또 한 번은 뒤에 넣으믄 되지 않느냐. 나는
녹천이도 소중허지만 느그덜도 내 손꾸락 같은 사람이어야.”

멜나무꾼 노비가 방 밖에서 었들었다가 한밤중에 최녹천에게 정 족장과
도공들 사이에 오간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사랑방 불은 벌써 꺼져 있었다.

“정 족장님께 토기장님이랑 모다 사과허드랑께요.”

“사람덜 소리가 나서 나도 안 자고 있었네. 근디 청자유약을 맹글라믄
소나무 재가 필요헌디 나 쪼깁 도와주소.”

“아이고메, 기술을 갈쳐주믄 고맙지라우.”

다음 날. 최녹천은 동막으로 가서 토기장 조씨가 내미는 술떡을 먹었다.
조씨가 집에서 술떡을 가져와 최녹천에게 주는 것은 앞으로 잘 지내자는
의미였다. 최녹천은 시큼한 술떡을 한 입 씹으면서 일부러 크게 말했다.

“술떡이 오살나게 맛있어부요.”

“어저께 밤에 족장님이 머락허시든디 인자 잊어봬씨다. 나도 우멍헌
사람이 아닌께 말이요. 마춤 집에 술떡이 있어서 나와묵고 잤아 갓고
왔소.”

“토기장님, 어차든지 잘 부탁허요.”

소화가 잘되는 술떡은 탐진 사람들이 예전부터 즐겨 먹어왔던 간식이었다. 술떡은 집안의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만들어서 이웃 간에 사이를 돈독하게 하는 떡이었다. 최녹천은 월주에서도 고방인과 함께 밀가루에 술을 뿌려 술떡 흥내를 내서 먹었는데, 월주가마 주인도 좋아한 나머지 어떤 날은 그가 먼저 술떡을 만들어 먹자고 했던 때도 있었다.

최녹천은 봉통에서 참나무를 서너 식경 동안 태운 뒤 숯불이 만들어지자 조개껍질을 몇 되 구웠다. 조개껍질들이 벌건 잉겔불에 바삭바삭 구워지고 나자, 이번에는 그것들을 반반한 바위에 올려놓고 빵았다. 봉통에 참나무를 넣고 불을 피우면 두 가지 이득이 있었다. 조개껍질을 굽는 숯덩이를 만들면서 가마 안의 습기를 말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가마 안은 장마철과 여름을 나면서 습기가 눅눅하게 배어 있기 마련이었던 것이다.

토기장 조씨는 최녹천의 작업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온 토기에만 정성을 쏟을 뿐이었다. 그런데 질꾼 하씨에게 구한 진흙으로 청자기물을 만들어온 최녹천의 입장은 달랐다. 최녹천은 가마 불 때는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했다. 최녹천이 가마 봉통에 참나무를 태우고 난 뒤, 기다리고 있던 노비가 소나무를 넣고 태우려고 하자 말했다.

“소나무는 재가 벨로 읊어. 참나무는 많은디. 궁께 유약 맹글기가 심들 수밖애 읊제.”

“참나무 재를 쓰른 안될게라우?”

“월주에서는 참나무 재로 회유를 맹글기도 험디 나는 여그 나무인 소나무 재를 써 불라네. 잣물에다가 조개가리를 섞으른 회유가 되겄제.”

진흙을 수비해 태토를 만들어온 하씨가 말했다. 하씨는 가리포에서 이사 온 사람으로 무릎을 치며 말했다.

“우리 마실에서 한 번은 조개무덤 구렁이에서 토기를 굽는디 토기에 푸르스름헌 광이 나드랑께요.”

“조개가 녹아 그란 것이겄지라.”

최녹천은 하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노천가마가 우연히 조개무덤(貝塚) 자리일 때는 청자유약을 바른 것 같은 토기가 나온 적이 있었던 것이다. 조개가루를 잣물에 넣는 것은 청자 빚깁을 내기 위한 비밀이었다. 다만 조개가루를 얼마만큼 넣어야 하는지는 최녹천도 월주가마 주인에게 배운 적이 없었으므로 몰랐다.



보름 후.

예정대로 토기와 청자 초벌구이 기물들을 가마 안에 차곡차곡 재임했다. 재임한 날 바로 고사를 지내면서 정 족장이 먼저 술을 받아 고수례를 했다. 불대장, 토기장도 술을 받아 음복한 뒤 가마에 술을 부었다. 최녹천은 갑자기 손이 떨려 술잔의 술을 흘렸다. 며칠 후면 토기와 청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자신의 실력이 판가름 나기 때문이었다.

이번 가마에서는 토기장과 협의한 결과 청자는 가마 앞쪽에, 토기는 뒤쪽에 재임하기로 했는데, 다음번에는 서로 위치를 바꾸기로 했다. 최녹천은 청자를 앞쪽에 재임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고집을

피우지는 않았다. 다음번에 뒤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봉통과 가까운 앞쪽은 공기유입이 많기 때문에 열이 덜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뒤쪽은 열이 갇히고 공기마저 태워버리므로 청자 특징대로 푸른빛이 더 도드라질 가능성이 컸다.

정 족장은 청자를 처음으로 굽는 날이어선지 시종 말이 없었다. 가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필 뿐 입을 꼭 다물고만 있었다. 반면에 토기장 조씨나 불대장 안씨, 거내꾼 김씨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봉통의 불길을 지켜볼 뿐 느긋했다. 그러다가도 봉통 안에 참나무 숯이 쌓이면 쇠갈퀴로 이리저리 훑트리곤 했다. 그래야만 가마 안의 위와 아래 온도가 같아졌다. 봉통 불에서는 재나 숯이 차면 안 되었다. <계속>